

## 사이버대학에서 성찰적 교수컨설팅을 통한 다독 중심의 영어읽기 수업 개발 사례연구

고보애\*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교

**Ko, Bo-Ai & Joung, Young Ran. (2014). A case study on English reading e-learning course development to introduce 'extensive reading' through reflective instructional consulting in a cyber university. *Modern English Education*, 15(4), 193-219.**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effective English reading e-learning course to introduce the relatively new approach of 'extensive reading' in Korea's cyber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primarily from English department undergraduate students (240) enrolled in an e-learning course at a cyber university during the second semester in 2013. For more effective course development, the researcher (instructor) willingly collaborated with the cyber university's instructional consultants. The unique 'reflective' consulting system supported the instructor in not only critically and synthetically analyzing target students' specific needs through group interviews and various surveys, but also improving the e-learning course contents and implementation. The data analysis incorporated numerou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revealing that students'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especially in 'extensive reading' areas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 findings. Also their course satisfaction and more importantly participation rate, overall attitude toward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and learning outcome related to reading self-chosen books showed positive effects. Through the reflective instructional consulting service, the instructor also experienced more active and exploratory course design and implementation, appreciating the changing role as a facilitator in the process of contextualizing a student-centered 'extensive reading' course designed for cyber university settings.

[e-learning course design/extensive reading instruction/reflective instructional consulting/이러닝수업설계/다독교수법/성찰적 교수컨설팅]

---

\* 주저자: 고보애, 공동저자: 정영란

## I. 서론

제2언어로서 영어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다독의 개념은 지금까지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에게 더욱 친숙한 개념인 정독과 비교하여 여러 측면에서 대비가 될 수 있다. 정독이 비교적 짧은 텍스트를 가지고 글의 언어학적, 의미론적 세부사항들을 분석해가며 정확성을 강조하며 독해해 내는 과정이라면, ‘확장형 읽기’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는 다독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여 많은 양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유창성을 강조하며 읽는 것이다. 즉 실생활에서 읽는 책 읽기처럼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같은 정의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즐거움을 위한 읽기’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읽기’를 제2언어로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Day & Bamford, 1998). 현재 한국의 영어교육환경(EFL contexts)에서 다독을 활용한 읽기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점점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서는 교양영어강좌나 영어학과 교과목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민혜, 이정원, 2012; 김성혜, 2013).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다독 프로그램 중에는 해당 학교의 영어도서관 자료들과 연계된 수업들로, 진정한 의미의 다독 읽기 커리큘럼으로 정착한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독 읽기교재들의 디지털화 과정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에서 정규 커리큘럼에 다독을 기반으로 한 영어읽기강좌를 개설한 사례가 아직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서는 그간 정독 중심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읽기전략 위주로 수업을 구성해 왔으나, 영어읽기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가 저하되고, 평생교육 측면에서 영어 읽기를 지향하는 ‘즐거움을 위한 읽기’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존의 정독 중심의 영어 읽기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다독중심의 영어읽기 수업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 개발은 영어읽기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수자가 전담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갖는 작업이다. 다독 중심의 영어읽기 수업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문가, 교수법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연구가 요구되며, 이와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교수자의 성찰적 실천 기반 이러닝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다독 기반의 영어읽기 수업’을 개발하게 되었다. 수업컨설팅은 고등교육에서 교수자의 수업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개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윤기욱, 이학주, 2001; Finelli et al., 2008). 특히 성찰적 수업컨설팅이란 컨설팅과정에서 컨설턴트의 지

원을 받아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 분석 및 문제점 분석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 개선을 수행하는 성찰적 실천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찰적 수업컨설팅을 통해 교수자는 수업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등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교수개발 방법으로 분석되고 있다(정영란, 2014). 다독 기반의 영어읽기라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학습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 교수자 역시도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겪게 되는 교수자의 역할 변화, 그리고 효율적인 수업구성 및 교재선택 등 많은 영역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업 모형 개발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적 과제를 수행하는 경험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독중심의 영어읽기’ 수업 개발을 위해 교수자의 성찰적 실천 기반의 수업컨설팅을 통해 교육 컨설턴트와의 협력적 연구 과정으로 학생요구분석, 수업 읽기전략 인식 설문조사(사전, 사후), 수업만족도 조사, 교수자 및 학생들과의 인터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양적, 질적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전 과정에 걸쳐 맥락적 기술과 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A사이버대학의 영어학과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강독 수업의 한 방법으로서 정독과 대비된 다독의 읽기전략들을 가르치며, 실제 온라인 수업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학습자 참여형 영어읽기 수업 방법 및 효과적인 온라인 기반 읽기수업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정독과 다독이 통합된 새로운 온라인 영어읽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독 읽기전략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정독 읽기전략들과는 다른 다독과 관련된 읽기전략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였는가?
- 2) 이전의 정독만의 온라인 수업에서 다독중심의 영어읽기를 통합한 새로운 온라인 읽기수업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 수업만족도, 수업 참여도, 과제 수행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3) 성찰적 교수 컨설팅을 통해 새로 개발하는 다독중심의 영어읽기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의 영어교육환경(EFL Korean contexts)에서 다독수업 적용 사례 연구

정독과 다독의 읽기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 정의 및 장단점 비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에서 포함되고 있으며 조금씩 그 해석의 차이가 보일 뿐 기본적인 설명들은 표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경훈, 임미란, 2012). 즉, 이제 한국 영어교육현장에서 다독에 대한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워 졌으며, 대부분의 영어 읽기지도를 다루는 학술자료나 참고서에도 다독의 영역은 정독의 읽기 영역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가야 하는 지도법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어 읽기지도에 있어서 다독에 대한 현장의 연구들은 정독의 읽기영역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 이유로는 학계나 현장 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인지적 미흡 보다는 현실적으로 다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지 못하고 학교기관이나 사교육 기관들 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읽기자료에 해당하는 교재구성에도 힘이 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선희, 2006; 전종민, 2012). 또한 그 교육적 효과가 읽기능력 향상이라는 잣대로만 평가 받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교사들은 그것도 단기적 효과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교기관의 요구에 다독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쉽게 이것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영어교육현장에서 다독을 수업에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대상학생들의 나이와 영어능력의 레벨에 따라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영역에서는 최근의 박선희와 최희경(2012)의 인터넷 영어 동화를 활용한 다독 활동 모형개발 및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를 주목할 만 하다. 또한 김정은(2002)과 문선희(2003), 그리고 박명희(2005)의 연구 사례들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독 수업을 실험집단에 적용시켜 어휘력 및 영어학습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이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독을 수업에 활용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며(김경훈, 임미란, 2012; 조경희, 이정원, 2010a), 이것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시도된 다독 수업들이 중고등학교 맥락에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정독 위주의 입시용 영어읽기로 전환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도서관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특화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 정도이다(조경희, 이정원, 2010a).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독 수업 사례는 현재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교양영어프로그램으로 합류되어 각각의 전공수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읽기능력을 배양하는 목표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영어도서관 시설과 합치되어 진정한 다독프로그램으로 정착한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H. Chung & J. Yang, 2012; J. Hwang & H. Lee, 2014). 학

생들의 영어능력에 따른 연구들은 주로 낮은 레벨의 학생들과 좀 더 높은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의 다독 프로그램 적용의 차이점들이 연구가 되고 있으며, 레벨이 낮다고 해서 다독프로그램 적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벨에 맞게 교재선정이나 접근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결론들을 도출해내고 있다(J. H. Byun, 2010).

또한 다독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사례 연구들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교재활용에 대한 연구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즉 레벨에 따라서 그 어휘나 문장구조를 적절히 통제하며 원작보다 단순화시켜서 표현들을 재구성한 ‘단계별 영어읽기교재(graded readers)’를 활용하는 경우와 아동들을 위한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잘 선정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들의 교재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한 J. H. Byun(2010)은 다양한 종류의 다독 읽기교재들을 섭렵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단계별읽기교재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요 이유로는 초등학교 레벨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로서의 입력이 아동들이 독립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초반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대숙(2004)의 연구에서도 다각적인 교재 선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전히 ‘단계별읽기교재’의 선정에 대해 대상자들의 레벨에 따라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했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선정과 연계되어 개발된 특정 배치교사(예; Edinburgh Project on Extensive Reading (EPER) Placement Test)를 등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들고 있다. 또한 다독 프로그램도 평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런 EPER 시스템과 연계된 단계별읽기교재의 선정은 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선희(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상급학년들을 대상으로 헤밍웨이와 스타인 백의 문학작품을 주 교재로 하여 다독 읽기수업모형을 제시하면서 외국어 학습용 교재와 문학교재 사이에서의 교재선정에서 문학교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독프로그램과 학습자가 그것을 간접 체험하는 체험 활동(학습자 감정적 이입과 인식의 전환이 목표가 되는)이 연결되는 수업모형에 대한 정당성과 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H. Chung과 J. Yang(2012)의 다독 연구에서도 단계별읽기교재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일지와 독서보고서를 활용할 경우에 공정하고 적절한 다독 활동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다각적인 교재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다독프로그램에서의 교재선정은 대상 학생들의 영어능력, 나이, 교재 선호도 그리고 모국어로서의 읽기경험 등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영어교육 현장에서의 다독 수업에 대한 연구는 다독수업과 영어능력의 향상 효과 면에서 집중되어 연구되고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다독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영어읽기능력의 향상에 대한 실험 연구들이며, 이것과

함께 어휘 측면에서 더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읽기, 쓰기로 연결되는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측면의 향상을 조명한 연구도 있었고(김선영, 2013), 이것은 다독수업의 긍정적 효과로서 쓰기 영역에서 유창성과 내용 지식에서 특히 향상을 보였고, 문법 및 철자영역 등 정확도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영어능력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정의적 효과를 다룬 연구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즉 다독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독서에 대한 태도변화 및 동기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김정은, 2002; 박명희, 2005; 신은주, 2003; 전종민, 2012)이다. 전종민(2012)은 Day와 Bamford(1998)가 제시하는 제2언어 읽기 동기모델을 연구에 활용했으며, 제2언어 읽기 경험을 같이하는 교사 혹은 친구들의 영향을 나타내는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제2언어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며 강한 동기부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J. H. Byun과 Kayi-Aydar(2012)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독 수업에서 책 읽기 이후의 연결활동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다독에 대한 생각들이 더 긍정적일 수도 또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좀 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후속연결활동들에서의 반응을 현장노트에 기입하고 또한 학생들의 학습일지에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들을 반영하게 하였다. 이것을 코드화 하여 주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나 인터뷰 데이터 분석을 보충한 연구이다. 이것은 다독 수업 적용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을 놓치지 않고 조명해 본 것으로, 최근에는 학생들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의 다독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다독프로그램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본 연구의 수업설계에서 교수자로서의 역할 변화 영역에서도 참고 문헌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J. Hwang과 H. Lee(2014)는 적은 규모의 한국대학생들과 함께 다독프로그램을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연계시키는 수업모형을 통해 학습자중심 수업에서 교수자가 촉진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다독수업이 ‘이해 가능한 입력’(Krashen, 1985, 1994)으로 역할을 하고 그룹 토론, 요약쓰기활동으로 연결되는 ‘이해 가능한 출력’(Swain, 1985)의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훨씬 성공적인 다독수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비록 사전연구(pilot study)로 수행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다독 수업연구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한 것으로 가치가 있으며, 이런 협력적 수업모형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 하다. 교수자의 역할이나 태도가 다독수업모형에서 촉진자의 역할과 협력자로 바뀌는 것은 학습자들의 역할 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H. Chung과 J. Yang(2012)도 다독프로그램에서의 교사의 믿음을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독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다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교사의 믿음이 다독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학생들의 독서 태도 형성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그리고 교사가 다독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적 양적 혼합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독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혹은 보완하는 다독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과 태도가 매우 도전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Bamford와 Day(1997)가 강조한 것처럼 다독 프로그램이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읽기교재와 교수자들의 적절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였다. 읽기지도에서 교수자중심의 관점은 성공적인 다독프로그램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Renandya & Jacobs,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 사례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 적용사례를 본 것으로서 전통적인 다독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본연구도 한 학기의 사례연구로서 앞으로 계속 축적될 자료와 함께 비교연구 및 장기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주로 양적 방법 즉 설문지조사나 사전, 사후 읽기능력시험 분석 등 통계적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질적 방법으로서의 참여관찰, 다각적 인터뷰, 현장메모, 학습일지분석, 비디오 녹화분석 등 인류학적 참여관찰적 방법이나 장기간의 사례연구들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독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영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어 도서관의 구축과 활용을 연구한 조경희와 이정원(2010b)의 사례이다. 이 연구는 특히 한국의 고등학교에 영어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한 연구로 현재 한국의 영어도서관 운영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독프로그램 수업을 위한 준비단계 작업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초등영어독서지수 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문기혁과 김정렬(2012)의 연구도 초등학교 영어교육현장에서 다독수업이 다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체계화 과정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하겠다. 현재는 한국어 읽기교육 분야(외국어로서)에서도 확장형 읽기로서 다독 프로그램의 교차 연구(우형식, 김수정, 2011)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서로 연구결과들이나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 2. 온라인 기반의 다독 수업 사례 연구 개발의 중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다독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형식으로 주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 EFL 대상의 읽기 교재를 출판하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의 영어교육출판사들의 단계별읽기교재 및 영어학습자문학에 해당하는 다독 프로그램용 교재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것과 연계된 프로그램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소개되고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서서 언급되었던 영어도서관들도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되어 다독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영어 공

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최수영, 김선희, 이현진과 문영숙(2011)의 연구는 영어 읽기수업을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로 개발하고 코스웨어 관리시스템을 현장의 교사들에게 연수시켜 공교육현장에서도 비싼 사교육과 원어민의 도움 없이도 더 효과적인 영어 읽기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독수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키는 영어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으로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등, 접근성이나 흥미유발 면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멀티미디어 도구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으로도 연계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효과적인 웹 기반 대학 실용영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사례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 말하기,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를 통합하는 수업사례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김남희, 문도식, 2010; 남정미, 김성애, 2009; 예진희, 2004; 이정화, 2010; 정규태, 장경숙, 2006).

그러나 다독 수업과 관련된 사이버 대학 사례 연구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영어다독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커리큘럼으로 병합시키려는 노력이 사이버 대학에서는 거의 없었고 여전히 정독 위주의 읽기수업으로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정규과목으로 수업을 개발했을 시 김정렬(2008)이 지적한 것처럼 전통적 교실 수업과는 매우 다른 온라인 수업만의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촉진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 개별학생들의 다양한 레벨에서의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 및 상호작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독 수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화 되고 있는 영어다독읽기교재들을 연계하여 수업을 구상한다면 훨씬 효율성 있는 읽기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독 수업에서의 읽기 전략(예; 사전을 찾지 않고 맥락에서 이해하며 읽어가기, 속도감 있게 읽기 등)과 유창성에 관련된 읽기 활동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구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온라인 읽기 공동체(online based reading community)를 조성하는 토론방 운영, 게시판 운영 및 과제물 프로젝트로 독서보고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등 훨씬 다양한 다독 읽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3. 교수개발 프로그램으로서의 성찰적 수업컨설팅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기반의 수업개발은 일반대학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수업 콘텐츠를 사전에 제작하고 차후에 게시판이나 토론방 활동, 퀴즈, 기말고사, 과제물 평가에 해당하는 강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학생들의 수업 반응과 피드백을 살피면서 강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은 체계적인 수업개발을 위해 요구분석, 교과 분석, 학생분석과 함께 차후의 수업 운영에 대한 활동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그간 온라인 수업 콘텐츠에 대한 정교한 교수전략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교수 능력 및 수업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미나, 강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노력은 교수자들의 방어적인 태도 및 소극적인 참여 등으로 한계에 부딪혀왔다. 수업컨설팅은 수업능력이 검증된 교수자가 동료 교수자의 수업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활동(이용숙, 2001)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교수개발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가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수업개발에 대한 조언을 경청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을 갖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성찰적 수업 컨설팅은 교수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컨설턴트의 주도가 아닌 교수자 중심의 수업컨설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는 컨설팅과정에서 교수자가 성찰적 실천을 경험함으로써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영란, 2014). 수업컨설팅에서의 성찰적 실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영란, 김동식, 2003). 첫째, 전문적 능력과 기술로서의 성찰적 실천 둘째, 비판적 사고로서의 성찰적 실천, 셋째, 학습 과정으로서의 성찰적 실천이며,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는 심도 있는 학습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 인식의 과정으로서의 성찰적 실천, 다섯째, 문제 해결과정으로서의 성찰적 실천이다. 즉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적극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컨설턴트와 협력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수업컨설팅과는 질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교수개발은 교수자가 좀 더 자기쇄신적, 탐구지향적으로 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수업컨설팅에서의 컨설턴트 의존형 구도에서 협력적 구도로 바뀌는 역할 변화에 그 차이점이 있다.

성찰적 실천은 그간 교사교육 등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이용숙, 2001; Brookfield, 1995; Clifford, 2001; Fernandez-Balboa, 1998; Hinchey, 1998; Taylor, 2000). 윤기옥과 이학주(2001)의 연구에서는 초임교사와 교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반성적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성찰적 교수개발은 교수법과 같은 특정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교수자의 인식과 태도를 자기쇄신적, 탐구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Baker(1996)도 교수자의 지속적인 성찰은 교수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천호성(2008)은 참여형 수업 연구를 통해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업 분석 과정이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 및 실행연구의 형태로 수업 컨설팅을 접근하였으며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업컨설팅의 방향과 관점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수업컨설팅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이은화, 김희용, 2008; 정미경, 2007), 그 이유는 교수자, 학습자,

컨설턴트 모두가 수업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찰적 수업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컨설팅의 절차와 세부 활동을 포함하는 모형이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Gottleber(2006)은 수업컨설팅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을 7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컨설팅 계약 단계로 컨설턴트와 교수자가 만나 교수자가 컨설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의 과정을 안내하고 합의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 및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컨설턴트가 교수자와 함께 학습자, 학습과제, 학습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수업 개선의 목표를 설정하여 3~6주 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해결 설계 단계이다. 컨설턴트는 교수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해결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컨설턴트와 교수자가 문제해결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해결책 실행에 대한 평가 단계이다.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 단위로 분석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평가에 따른 결과 분석 및 필요한 경우 해결책의 재설계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컨설팅의 종료단계이다. 교수자가 컨설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수업전략을 활용하여 수업개선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찰적 수업컨설팅을 통해 다독 기반의 영어읽기 수업을 개발하였으며, 교수자의 성찰 과정을 통해 수업 개발에 필요한 교수학습방법 등을 설계, 개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2학기 서울소재 A사이버대학 영어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영어읽기전략 및 독해연습’에 등록한 24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의 분포도 다양했고 영어교육현장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등록생들은 영어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타과 전공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주된 학습 목적은 영어 읽기전략을 통한 독해능력의 개발과 함께, 향후 영어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사로서 읽기전략 교수법을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 개강에 맞춰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학생 240명 중 설문조사 참가자는 206명이었고, 그 중에 남자는 42.7%(88명), 여자는 57.3%(118명)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7.9%(78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33.0%(68명), 20대 26.2%(54명), 50대와 60대 이상이 1.9%(4명), 20세 이하는 1.0%(2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영어교육 경험유무를 살펴보면, 73.8%(152명)이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15.0%(31명)은 2년 이상의 경력, 11.2%(23명)은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영어실력을 조사한 결과, TOEIC 500점 이하가 40.3%(8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TOEIC 500점 대가 21.8%(45명), 600점 대가 14.6%(30명), 700점 대가 12.1%(25명), 800점 이상이 11.2%(23명)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실력도 편차가 좀 큰 편이고 나이나 직장 경험 등 다양한 층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 2. 수업절차

### 1) 수업컨설팅 준비

본 연구는 연구자가 4년간 강의해왔던 사이버대학의 영어학과에서 개설된 영어독해과목을 새로운 독해 접근법과 수업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이루어졌다. 즉, 정독 위주의 독해과목으로 여러 분야의 재미있는 텍스트들을 집중해서 문장 별로 분석하면서 유도적 읽기(guided reading)를 시도했던 ‘실용영어강독2’라는 과목을 운영해오면서, 학생들의 영어독해실력이나 영어로 읽기활동을 즐기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수업만족도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몇몇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꾸준히 영어로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새로운 강의개발의 필요성으로 연구자는 지난 학기 수업의 체계적인 수업만족도 분석, 학생들의 요구분석 등을 필두로 그 당시 가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업을 설계하는 수업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교수자와 컨설턴트가 협력적 관계로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성찰적 실천기반의 이러닝 수업컨설팅은 학과분석, 수업분석, 요구분석 등을 통해 수업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수업운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아래 그림은 성찰적 실천과정에 대한 개략적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정영란, 2014, p.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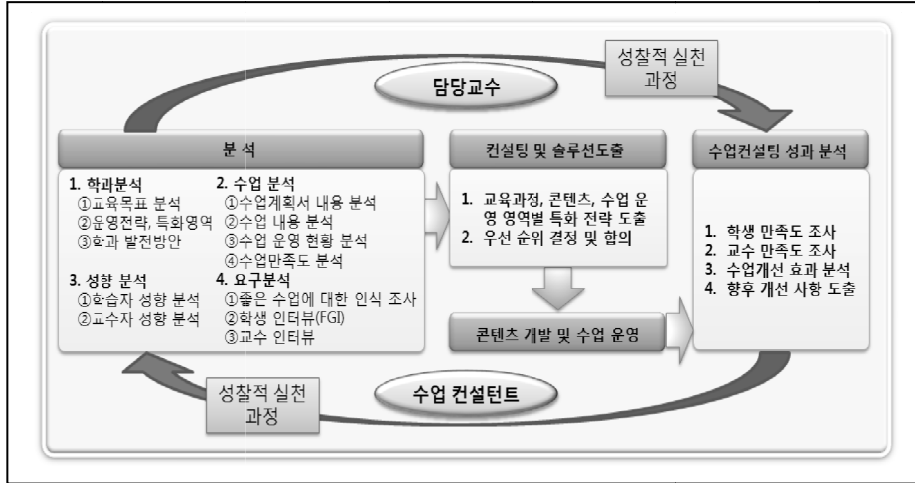


그림 1 성찰적 실천기반 이러닝 수업 컨설팅 모형(정영란, 2014)

2) 수업설계

지난 학기 ‘실용영어강독2’에서의 수업만족도평가 분석과 학생들의 요구분석, 그리고 그룹 학생 인터뷰 자료들을 토대로 수업컨설팅 1차 미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수자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실행할 수 있었고 계약적인 대안적 수업 구상에 착수하였다. 지난 학기 실용영어강독2 수업에서의 정독만을 위한 14주의 강의는 정독에 대한 주차(2-9주), 그리고 새로운 시도인 다독에 대한 모델링 수업(10-13주) 그리고 1주는 정독과 다독의 차이점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세션으로 구상하였고, 마지막 14주는 다시 정독과 다독에 대한 총 복습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다독만을 다루는 영어독해수업으로 구상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법의 읽기수업을 너무 급작스럽게 전체분량으로 소개하는 것 보다는 다독을 익숙한 읽기접근법인 정독 중심 접근법과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접근법을 상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함께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수업 구상은 물론 다독을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수업 설계는 아니었지만, 처음 온라인상에서 다독 수업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익숙한 것과의 대조로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다독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다독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기 도입 단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업구성

평소 점수(토론방참여점수) 10%, 과제 10%, 출석 20%, 퀴즈 30%, 기말대체 과제물 30%로 구성한다. 사이버대학 온라인 강좌의 기본적인 수업구성은 한

학기에 14주를 기준으로 하며, 1주차에 25분씩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온라인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도 등 수업효과 면에서 고려한 구성이며, 본 연구자의 강의도 이렇게 25분씩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구성을 하였다. 1교시 25분에는 주로 읽기전략에 해당하는 이론적 설명을 하는 presentation 및 modeling session이고, 2교시 25분에는 그 주차에 해당하는 독해지문을 정독부분에서는 다루게 된다. 함께 유도적 읽기를 하면서 관련된 읽기전략을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이다. 정독부분에서는 500자 정도의 짧은 에세이 형태의 독해지문을 함께 분석적으로 읽으며 관련 읽기전략을 공부하고, 다독의 주차에서는 짧은 소설을 한 권 택해서 챕터별로 읽으며 다독의 읽기전략을 모델링하였다. 나머지 3교시에는 대부분 학습자 개별 연습 세션으로 구성하는데 본 강의에서는 3, 5, 7주차에 해당하는 3교시에는 정독에 해당하는 읽기전략들을 연습해보는 문제풀이시간으로 특화시켜 플래시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10, 11, 12주차 3교시에는 다독의 속도감 있게 읽기활동을 지원 하는 연습 세션으로 온라인 콘텐츠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씩 의미구별로 빠르게 읽어가는 다독의 중요한 기술을 연습하도록 화면상으로 구현을 하였다.

#### 4) 다독의 교재선정

정독의 읽기전략 복습 과정 (2주-9주)이 끝나면 학생들은 10주차부터 이미 이론적으로는 익숙해진 다독의 유도적 읽기 (10주-13주)으로 접어들게 된다. 다독 체험을 위해 선정한 교재는 Oxford 출판사의 'Bookworm Series'의 level 2과정에 있는 'Voodoo Island'라는 책이었다. 240명의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책의 난이도를 정했고, 3주간 책을 챕터별로 다 끝까지 완독하는 체험이 중요했기 때문에 책의 분량도 거기에 맞추어 정했다. 책의 주제도 대상 학생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을 내용의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3주간 다독체험을 위한 책을 읽으면서 다독에 관련된 중요한 읽기전략들 예를 들면, 단어를 찾지 않고 문맥 속에서 뜻 유추하며 읽기, 속도감 내면서 읽기 등을 가르치고 3교시에는 학생들 스스로 온라인상에 구현된 이런 읽기활동 연습을 하게 된다.

#### 5) 퀴즈활동

상반기에 치르는 퀴즈는 정독을 위한 읽기전략에 관한 독해문제들로 구성되었고 첫 퀴즈와 마지막 퀴즈 (1주, 12주차)에는 다독 읽기전략을 얼마나 인지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정독, 다독 읽기전략의 향상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퀴즈는 주차당 10 문항 정도로 구성되고 4지선다형이며 정독의 읽기전략은 짧은 단락을 읽고 독해문제를 주로 풀고 그 문항을 풀 때 관련

된 읽기전략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었고, 다독 읽기전략은 다독의 읽기상황을 주고 가장 적합한 방법의 읽기전략을 묻는 문항들로 연구자에 의해 출제가 되었다; 문항 예시 - Reading for pleasure를 위해 하는 Extensive Reading을 위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읽기전략을 고르시오. 1) 빠르게 속독하며 대충의 의미를 파악하며 사전을 찾지 않고 읽는다. 2) 그 문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3) 그 문장에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살피며 함축된 의미를 파악한다. 4)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 대입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쓰며 찬찬히 읽는다.

#### 6) 과제물 활동

이 수업의 과제평가는 다독체험을 연장할 수 있는 개별적 읽기체험으로 하면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말고사를 대체하게 하였다. 과제는 2번으로 나누어 1차에서는 5주차에 자신이 읽고 싶은 다독을 위한 책을 선정하여 2달간 계획을 세워 완독할 수 있는 실행계획과 읽기전략에 대해 간략히 써서 내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책 선정기준을 다시 알려주고, 학생들이 다독을 위한 효과적인 책 선정을 하도록 도왔다. 2차 과제에서는 2달간 자신의 페이스로 읽은 책에 대한 독서보고서를 A4용지 2매 정도에 해당하는 보고서 형식에 입력하여 온라인 과제함으로 제출하는 것이었다. 보고서를 쓸 때는 한글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으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독서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보고서로 방향을 잡았다. 과제 문항에서 다독체험을 위한 첫 영어책읽기에서 어떤 읽기전략을 적용하였으며, 어떤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거나 계속 문제점으로 남았는지에 대한 과정적 적응과정에 대한 내용을 적게 하는 문항도 포함시켜 형식적인 과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7) 공지사항, 게시판 활동 및 토론방 활동

이 수업은 다독에 대한 새로운 읽기전략들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학생들 개별 체험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나눔이 필요한 수업으로 구상하였다. 즉 2차 과제물에서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다독 읽기전략을 수행하며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교수자와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간의 온라인 통로인 공지사항, 게시판활동 (교수님 궁금해요 Q&A) 그리고 토론방 운영이 기본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론방 운영은 교수자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및 학생들간의 읽기공동체(reading community)를 형성하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업 컨설팅 과정에서 합의점으로 도출해내었다. 토론방 활동은 평소 점수로 환산하여 메인글과 댓글을 3회 이상 참여했을 시에 만

점을 주는 평가시스템으로 활용했고, ‘나의 다독 경험 공유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자신의 선정한 책 읽고 독서보고서 쓰기)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했다.

#### 8) 설문조사 활동

수업의 일환으로 수업에 참여한 대상 학생들에게 ‘영어읽기전략에 대한 자기 평가조사’를 학기초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와 마지막 주 수업을 종료할 시점에 2회에 걸쳐 실행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정독 및 다독에 관련된 읽기전략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해보는 설문지로서 Likert의 5척도를 사용하여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정독에 대한 문항이 5개, 다독에 대한 문항이 4개로 수업 구성과의 비율을 맞추었고, 수업목표로서 제시되었던 정독 및 다독 관련 읽기 전략들이 다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읽기전략 문항을 영어로 표기하고 바로 이어서 한국어로도 번역표기 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예) Reading fluently by ignoring unknown words(not using dictionary) 모르는 단어 무시하고 유창성 있게 읽어보기; 1) 전혀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독과 다독을 위한 읽기전략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로 활용효과도 있으며, 학생들의 읽기전략 인식의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독 수업을 효과적으로 온라인강의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기와 같이 수업절차를 구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전, 사후 설문지조사,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시판 활동 및 토론방 자료 조사, 수업이 종료되었을 때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업만족도조사 등의 양적 분석 자료가 수집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위해 지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의 인터뷰, 토론방이나 과제내용에 첨가된 학생들의 의견들 및 컨설턴트와 행해졌던 교수자 본인과의 인터뷰 내용들이 기초가 되는 질적 분석 자료들을 혼합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자료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표는 이런 수업절차와 자료수집의 기본이 된 분석방법들을 간략화한 것이다.

표 1

## 수업절차와 자료분석방법

주차	수업절차	분석방법
수업개강 전		이전학기 수업만족도조사 학생들 요구분석: 인터뷰
1주	수업: 정독 및 다독의 개념정리 오리엔테이션 세션	온라인수업 도구인 설문지 조사 (대상 학생들 배경조사, 정독/ 다독 읽기전략들 인식 정도 ) 좋은 수업에 대한 의견)
2주~5주	수업: 매 주차 정독의 다양한 읽기전략 다룸	3주: 1차 퀴즈 (정독/다독 읽기 전략 사전시험 역할) 5주: 1차 과제물 공지 (다독체험 을 위한 책 선정 및 실행계획)
6주~9주	수업: 매 주차 정독의 다양한 읽기전략 다룸 다독에 대한 예고/공지사항	6주: 2차 퀴즈 (정독 읽기전략) 9주: 3차 퀴즈 (정독 읽기전략)
10주	수업: 다독에 대한 이론적 배경 복습 (정독과 대비시켜)	10주: 2차 과제공지; 기말고사대체 독서보고서
11주~13주	수업: 다독 modeling 다독 읽기전략 활용하며 읽기 Graded reader: level2  'Voodoo Island' 40pages 완독	12주: 4차 퀴즈 (정독/다독 읽기전략 관련 문항; 향상도 테스트)  12주: 토론방 개설 (다독 체험 책 읽기 개별과제에 대 한 책 선정, 읽기전략 적용 시에 어 려운 점들을 학생들간에 온라인 토 론방에서 나누는 시간)
14주	수업: 정독 vs. 다독 읽기전략 총 복습	온라인수업 도구인 설문지 조사 (2차: 정독/다독 읽기전략 인식의 정도) 전체적인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수업종료 후:		컨설팅트와 교수자 인터뷰

\*공지사항게시판, 교수님궁금해요 Q&A, 학습자료실은 상설 이용

## IV. 연구결과 분석 및 토론

## 1. 정독 및 다독 읽기전략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주제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정독 및 다독 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의 정독 및 다독 읽기전략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기본적인 양적 자료인 읽기전략인식에 관한 사전, 사후설문조사를 비교해보았다. 사전조사(1차)는 학기초 개강 직후 실시되었고, 사후조사(2차)는 수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표 2

영어읽기전략 인식 정도 사전, 사후 설문지 분석 결과

구분	차시	N	M	SD	t	p
훑어읽기를 통해	1차	206	55.83	23.74	-5.97	.00
중심생각 찾아내기	2차	186	68.55	18.35		
지시어들을 제대로	1차	206	54.13	22.66	-6.41	.00
확인하기	2차	186	67.88	19.44		
문맥을 통해 의미를	1차	206	56.80	21.44	-5.87	.00
유추하기	2차	186	68.68	18.67		
행간에 숨어있는 뜻	1차	206	50.12	22.83	-5.89	.00
알아내기	2차	186	62.90	19.83		
연결어를 확인하고	1차	206	53.64	21.50	-7.05	.00
생각의 흐름잡기	2차	186	67.74	17.66		
특별한 정보를 찾을 때	1차	206	51.82	23.94	-6.41	.00
스캐닝스킬을 사용하기	2차	186	65.86	18.85		
모르는 단어 무시하고	1차	206	57.16	24.20	-5.35	.00
유창성있게 읽어보기	2차	186	69.22	20.39		
단어단위로 읽지 않고	1차	206	54.13	22.39	-7.58	.00
속도 내어 읽기	2차	186	70.43	19.95		
읽는 과정 중 정보들을	1차	206	49.76	22.09	-6.31	.00
적절히 정리하며 읽기	2차	186	63.04	19.31		

1차 설문과 2차 설문에서 각 읽기전략 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읽기전략들에 대한 인식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독의 읽기전략의 핵심으로 이번 수업에서 다뤘던 ‘모르는 단어 무시하고 유창성있게 읽어보기’는 2차 설문에서 1차 설문에 비해 평균적으로 12.06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35, p=.00$ ). 또 다른 다독의 읽기전략 중 하나인 ‘단어단위로 읽지 않고 속도 내어 읽기’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설문에서 1차 설문에 비해 평균적으로 16.30점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7.58, p=.00$ ). 또한 읽기전략에 대한 개발 정도를 살펴본 2차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모르는 단어를 무시하고 유창성있게 읽어보는 전략을 31.2%(58명)로 가장 많이 개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읽기전략 인식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독을 기존의 정독 수업과 연결시켜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업구성을 하면서 설문지조사활동을 통해 읽기전략에 대한 인식을 더 촉진시킨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주관식 의견과 토론방에서의 의견들을 분석해 볼 때, 후반부에 더 집중적으로 개발 의도를 가진 다독에 해당하는 읽기전략들은 토론방 활동과 다독체험 개별읽기활동을 기말고사 대체과제물로 잘 연결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읽기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와 학습의지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퀴즈점수도 평균적으로 사전 테스트로 쓰인 1차 퀴즈(3주차 실시)보다 사후 테스트로 마지막 주에

치른 정독/다독과 관련된 읽기전략에 관한 향상도를 측정하는 4차 퀴즈(12주차에 실시)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퀴즈의 향상도는 학습효과에 의해 일반적으로 후반부의 퀴즈 점수가 더 높은 것을 고려하여 크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 2. 다독중심의 영어읽기 수업이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에 미친 영향

두번째 연구문제로 대학 온라인 수업에서 다독중심의 영어읽기를 전통적인 정독만의 읽기수업 형태에 통합하여 새롭게 개발을 하였을 때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 수업만족도, 수업 참여도, 과제 수행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성찰적 수업컨설팅의 학생요구분석을 위해 사전 설문 조사를 한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및 개선점’에 대해 결과를 정리해보면, 총 15개 항목으로 구분된 5.0 만점의 중요도 측정에서 교수의 전문성이 4.75, 티칭스킬이 4.67, 평가의 타당성이 4.65 그리고 수업운영면에 신속한 피드백 부분이 4.71로 상위 중요도 순위에 들어갔다. 또한 영어학과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식의견으로는 학습자에 맞추어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결정하거나 학습내용의 실용도가 높아야 하며, 교수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온라인 학습 시, 시공간 제약이 없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반복 시청 및 속도조절 지원 기능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선점으로는 학습자를 고려한 학습내용 구성 및 다양한 강의 구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교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기술적인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영어학과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받아들여, 이번 다독수업에서는 1)교수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토론방’ 운영을 최적화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의 게시판 활동인 ‘교수님 궁금해요’와 ‘자유게시판’활동도 24시간 내에 답변 글을 달아주며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2)효과적인 다독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플래시 기법을 활용한 속도 재며 읽기활동, 의미구별로 건너뛰며 읽는 것을 하이라이트 기법을 활용하여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이 의미 있는 다독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게시판별 수업참여도 분석 결과 (지난 학기 과목과 비교)

구분	연도	M	SD	t	p
교수님 궁금해요 (참여건수)	2012-2	.24	.77	-3.37	.00
	2013-2	.45	1.11		
교수님 궁금해요 (참여인원)	2012-2	13.00	3.46	-2.03	.11
	2013-2	38.33	21.39		
자유게시판 (참여건수)	2012-2	.30	.70	-3.35	.00
	2013-2	.97	4.35		
자유게시판 (참여인원)	2012-2	24.67	1.16	-1.10	.38
	2013-2	35.67	17.21		
토론방 (참여건수)	2012-2	.53	1.22	-8.57	.00
	2013-2	2.06	3.73		
토론방 (참여인원)	2012-2	28.00	48.50	-2.49	.07
	2013-2	84.33	73.65		

분석대상 별로 수업참여도를 살펴보면, ‘교수님 궁금해요’에서 학생들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0.21건 높게 참여하였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t=-3.37, p=.00$ ), 참여인원의 경우에는 2013년 2학기 다독 수업에서 평균적으로 25.33명 더 참여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유게시판’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0.66건 높게 참여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t=-3.35, p=.00$ ), 참여인원의 경우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11명 더 참여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토론방’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1.53건 높게 참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t=-8.57, p=.00$ ) 참여인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82명 참여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즉 전체적인 수업참여도는 전반적으로 확실히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참여건수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수업게시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횟수를 더 늘려가는 패턴을 보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난해 수업 참여자 학생들과 이러한 집단비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유사한 집단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계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사례연구에 어느정도의 객관적인 비교수치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양적 자료 분석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토론방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유게시판’이나 ‘교수님 궁금해요’에서 비공개글로 주로 글을 올리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향이 점점 바뀌면서 이미 자신의 책 선정이나 다독 읽기전략 적용 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성공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공유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토론방에서 활성화된 것은 비

단 수치상의 문제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질적 변화가 컸으며, 학생들의 대부분이 후반부 메인글이나 댓글에서 이 다독수업에서 얻게 된 가치 및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내적 동기나 태도가 변화되면서 학생들의 마지막 과제물 독서보고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물론 소수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도 있었고, 책 선정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한 경험도 솔직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지막 과제물 프로젝트는 이런 토론방을 통한 읽기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수업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차부터 한 달간 실시된 수업만족도평가는 학교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서 전반적인 만족도평가 수치뿐만(아래 표 참조) 아니라 학습내용, 수업콘텐츠, 교수강의, 수업운영, 학습효과 이렇게 5가지 영역에 세부 항목들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2012년, 2013년 2학기 독해수업이었던 ‘실용영어강독’과 ‘영어읽기전략 및 독해연습’을 비교한 결과 전년도 대비 평균이 0.93점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 -46, p = .64$ ). 또한 세부항목 5가지 영역에서도 모두 비슷한 정도의 점수차로 이번의 ‘영어읽기전략 및 독해연습’ 과목에서 수업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2배로 인원수가 증가된 대단위수업에서, 학생들이 새롭게 편성된 여러 가지 수업활동과 설문조사에 응하면서도 처음 개편된 이 과목의 수업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하면, 꽤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지나치진 않다.

표 4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 (지난 학기 과목과 비교)

구분	N	M	SD	t	p
2012.2					
실용영어강독	114	77.42	16.32		
2013.2				.46	.64
영어읽기전략 및 독해연습	206	78.35	17.90		

### 3. 성찰적 교수 컨설팅을 통한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성찰적 실천 기반의 수업컨설팅을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 교수자와 컨설턴트간의 지속적인 수업 분석 및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자는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수업컨설팅 과정은 크게 분석 단계와 컨설팅 및 솔루션

선 도출단계, 콘텐츠 개발 및 수업 운영 단계, 수업컨설팅 성과 분석 단계의 총 4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찰적 실천 기반의 수업컨설팅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단계에서는 외부 내용 전문가의 ‘수업내용 분석’ 피드백을 받았으며, 사이버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조사, 좋은 수업 인식조사를 위한 학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활동 전에는 교수자는 막연하게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 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영어 읽기 교과’의 특성상 교수자는 읽기 전략을 어떻게 학습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교과의 학습내용을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 주제의 흥미, 내용의 풍부성, 자신의 관심 분야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학습동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교수자가 흥미로운 읽기 자료의 선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읽기 전략’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학에서의 학업을 통해 영어능력의 향상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영어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교수는 분석 단계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학습 전 사전능력을 점검하고, 학습 후 영어 능력의 신장을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도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 도구는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등을 위해 교수자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쉽게 도출할만한 해결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석 단계의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지원체계 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분석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컨설팅 및 솔루션 도출단계 및 세 번째 단계인 콘텐츠 개발/수업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회의를 통해 분석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는 우선 기존의 교재 대신 흥미로운 읽기 자료를 포함한 교재를 새롭게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학기 초에 영어 읽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진단하고, 수업을 통해 좀 더 개발하고 싶은 읽기 전략을 나열하도록 하며, 학기말에 읽기 전략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다고 인식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의 성취 및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는 등 교수자의 적극적인 수업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략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 및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운영자 등의 지원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교수자가 좀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수업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자의 수업개발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컨설팅 솔루션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교수자는 수업 관련 상세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외부 내용전문가를 통한 교과 내용의 개선 피드백, 컨설턴트를 통한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학습자 참여와 수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피드백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교수자가 주도하는 성찰적 실천 기반의 수업 컨설팅 과정은 교수자가 수업 개선 솔루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컨설팅 과정에서 수업개선을 위한 탐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마지막으로 수업컨설팅 성과 분석 단계에서는 교수자는 연구자로서, 학습자의 성취도, 수업 참여도, 수업만족도, 학습동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수업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교수자의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주의 깊게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수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학습자의 호응이 높았던 전략과 그렇지 않은 전략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며,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수자는 수업개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으며, 교수자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성찰적 실천가로서의 경험을 통해 교수자의 전문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윤기옥, 이학주, 2001; 이용숙, 2001; 정영란, 김동식, 2003; Brookfield, 1995; Clifford, 2001; Taylor, 2000)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서 성찰적 수업컨설팅을 통해 다독 중심의 영어읽기 수업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다독 읽기전략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질적, 양적으로 분석한 사례연구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가지는 도전적인 온라인수업 개선에 대한 부담과 체계적인 분석 및 해결방안의 탐색의 필요성으로 인해 ‘성찰적 수업컨설팅’이라는 교육학적 기반을 둔 전문 상담 교수자와의 협력적 관계로 학생들의 요구분석 및 수업 개선에 대한 해결책 모색, 수업 개선의 효과성 분석 등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성찰적 수업컨설팅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수자로 연구자는 수업 개발을 위한 준비,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 교

수자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깊이 성찰하면서 온라인 다독수업 개발을 수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정독 및 다독과 관련된 영어읽기전략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독 부분의 핵심 읽기전략들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업 개발에서 의도했던 학생들의 다독 읽기 전략 개발이 실제로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업참여도면에서도 다독 수업을 하면서 활성화시킨 ‘토론방’ 운영을 통해 소극적이고 자신의 정보를 나누기 싫어했던 학생들이 다독읽기체험과 과제물에 대한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온라인상의 읽기공동체로서의 긍정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나갔다. 전체적인 수업만족도가 지난번 읽기강독수업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으나, 온라인 수업에서 정독과 다독의 대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접근했던 이 수업모형은 앞으로 사이버대학에서 다독을 위한 수업의 도입 코스로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정도의 결과를 양적, 질적 분석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다독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인 수업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해가듯이 교수자도 촉진자로서의 다독수업에서의 변화된 역할에 적응을 하며 그 필요성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체계적인 학생요구분석 및 수업참여도 개선을 위한 해결책들이 수업컨설팅을 통해서 더욱 더 명료해졌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 교수자가 자기 쇄신적, 탐구지향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선행연구에서의 지적이 이번 사례연구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 영어교육환경에서 다독체험 수업을 통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온라인 읽기 공동체의 관계 형성은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서서히 발전해나갔으며, 마지막 토론방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실하게 그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다독수업의 연구 사례는 변화해가는 온라인 영어교육환경에서 계속 관심있게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제2언어로도 실생활에서 하는 책 읽기처럼 즐겁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독 체험을 하는 수업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혼자서 시도하기 힘든 정의적 요인이 있기에 이러한 온라인 영어읽기 공동체와 함께 하는 다독수업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대 다독수업 모형은 앞으로 영어온라인 도서관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다독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번 온라인 다독 수업사례에서 보여진 것 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책 선정을 도와주는 레벨 테스트나 독서일지 등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설치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대학기반 영어다독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사이버대학 다독 입문수업 모형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처음 모델링을 해주고 다독과 관련된 읽기전략을 가르치는 정규수업으로 연계되면 훨씬 더 좋은 구도

로 다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운영 시 평가의 문제도 더욱 더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향후 모색되리라 사료된다. 이것 역시도 전산화 과정을 잘 거친다면 교수자의 시간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 교수자가 더 다독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시도하게 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강민혜, 이정원. (2012). 확장형 읽기를 통한 영어읽기능력 신장 방안 연구. *중등 영어교육*, 5(1), 121-142.
- 김경훈, 임미란. (2012). 확장형 읽기를 통한 영어 독해능력 향상. *영어영문학* 21, 25(1), 155-168.
- 김남희, 문도식. (2010). 사이버대학 웹기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언어연구*, 27(3), 581-598.
- 김선영. (2013). 다독을 이용한 영어 읽기-쓰기 융합 연구: 중등 영어교실. *언어학*, 21(3), 273-300.
- 김선희. (2006). 새로운 읽기 교육 제안: 다독과 체험하기. *현대영어영문학*, 50(4), 21-40.
- 김성혜. (2013). 대학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현대영어교육*, 14(2), 263-290.
- 김정렬. (2008). *이러닝(e-Learning)과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정은. (2002). *인터넷 동화를 활용한 초등영어 어휘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남정미, 김성애. (2009).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수업 사례연구: 교양영어 교과목으로 온라인 토익수업의 학습효과. *새한영어영문학*, 51(1), 277-301.
- 문기혁, 김정렬. (2012). 다독 현장에서의 초등영어독서지수 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멀티미디어언어교육*, 15(1), 157-179.
- 문선희. (2003). *다독활동이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인천.
- 박명희. (2005). *인터넷 영어 동화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 학습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박선희, 최희경. (2012). 인터넷 영어 동화를 활용한 다독 활동 모형 개발 및 적용 효과. *멀티미디어언어교육*, 15(3), 57-82.
- 신은주. (2003). *자발적 읽기가 영어 읽기 쓰기 능력 및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 예진희. (2004). 효과적인 웹기반 대학 실용영어 교육방법론에 관한 제언. *현대 영어교육*, 5(2), 154-172.
- 우형식, 김수정. (2011). 확장형 읽기 활동을 적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효과 연구. *언어와 문화*, 36, 159-187.

- 윤기옥, 이학주. (2001). 반성적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교사, 초임교사, 교생의 지각 분석. *초등교육연구*, 14(3), 317-345.
- 이용숙. (2001). 대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227-252.
- 이은화, 김희용. (2008). 좋은 대학수업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2(1), 123-146.
- 이정화. (2010).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온라인 대학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언어교육*, 13(3), 215-235.
- 전종민. (2012). 다독이 영어읽기 태도 및 동기에 미치는 영향. *공사논문집*, 63(1), 7-21.
- 정규태, 장경숙. (2006). 웹기반 대학교양영어 교과과정 설계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 13(2), 1-23.
- 정미경. (2007). 교원양성교육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한국교육과정학회*, 25(3), 247-264.
- 정영란. (2014). 교수자의 성찰적 실천에 기반한 이러닝 수업컨설팅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0(2), 275~301.
- 정영란, 김동식. (2003). 웹 기반 프로젝트 중심 학습에서 성찰적 실천 과정이 학습자의 태도 및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 *교육공학연구*, 19(2), 87-115.
- 조경희, 이정원. (2010a). 확장형 읽기를 통한 고등학교에서의 영어읽기교육. *영어교육*, 65(4), 343-371.
- 조경희, 이정원. (2010b). 영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어 도서관의 구축과 활용. *현대영어영문학*, 54(4), 255-276.
- 천호성. (2008). 수업컨설팅을 통한 교실 수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 교육*, 47(3), 109-134.
- 최수영, 김선혜, 이현진, 문영숙. (2011).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활용 방안 및 사례 연구. *교원교육*, 27(1), 153-177.
- 한대숙. (2004). 영어강독 교수방법으로서의 다독(Extensive Reading);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다독실시결과. *언어과학연구*, 28, 275-292.
- Baker, C. (1996). Reflective learning: A teaching strategy for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 19-22.
- Bamford, J., & Day, R. (1997). Extensive reading: Why bother? *The Language Teacher*, 21, 12-14.
- Brookfield, S. D. (1995). *Becoming a critically reflective teacher*.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yun, Ji-Hyun. (2010).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spectives toward the reading materials in an extensive reading program. *English21*, 23(4), 263-286.
- Byun, Ji-Hyun, & Kayi-Aydar, H. (2012). Korean college students' reflexive positions toward extensive reading and follow-up activities. *English21*, 25(1), 247-267.

- Chung, Hyejin, & Yang, Jungwan. (2012). Identifying teachers' beliefs in extensive reading.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6(4), 253-276.
- Clifford, M. (2001). Deepening our reflectivity. *The Teacher Educator*, 36(4), 248-264.
- Day, R., & Bamford, J. (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nandez-Balboa, J. (1998). The practice of critical pedagogy: Critical self-reflection as praxis. *Teaching Education*, 9(2) 47-53.
- Finelli, C. J., Ott, M., Gottfried, A. C., Hershock, C., O'Neal, C., & Kaplan, M. (2008). Utilizing instructional consultations to enhance the teaching performance of engineering faculty.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97(4), 397-411.
- Gottleber, C. (2006). Instructional consultation teams: A model of teacher and student support. *Center for Educational Networking*, 8(3). Retrieved May 1, 201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focus.cenmi.org/wp-content/uploads/2010/08/GATA06-08.pdf>.
- Hinchey, P. H. (1998). Reflective practice, literature, and critical theory. *Teaching Education*, 9(2), 111-118.
- Hwang, Junghee, & Lee, Hyoshin. (2014). Critical reflection on extensive reading through collaborative active learning at college level.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33, 195-217.
- Krashen, S. (1985).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 London: Longman.
- Krashen, S. (1994). The input hypothesis and its rivals. In N. Ellis (Ed.),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of language* (pp. 45-7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enandya, W., & Jacobs, G. (2002). Extensive reading: Why aren't we all doing it? In J. Richards & W.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pp. 238-2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M. Gass (Ed.),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35-253). Rowley, MA: Newbury House.
- Taylor, W. P. (2000). The use of language in reflective teaching: Implications for self-understanding. *Journal of Educational Thought*, 34(3), 223-38.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고보애

서울디지털대학교 영어학과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22 / C. P. : 010-9206-6426

Email: koboai@sdu.ac.kr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61/ C.P.: 010-2370-6417

Email: youngnani@sdu.ac.kr

Received 15 September 2014

Revised 17 November 2014

Accepted 21 November 2014